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서 인종적 차별과 편견을 읽는 의미 연구*

박우영 (협성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인종의 문제를 읽어가기: 현실과 가상현실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서

III.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타자를 이해하기: 인종적, 민족적 이해와 표현이 드러나는 구조들

IV.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벌어지는 대상화: 탈식민지적 정체성과 상황을 판매하기?

V. 기독교윤리학적 과제 읽기: 도덕적 주체인 문화적 타자에게 힘을 부여하기

VI. 나오는 말: 획일적 차별의 문화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성으로

* 본 논문은 *Disrupting cyberspace: a theo-ethical reading of power relationships in cyberspace* (2006)라는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사이버스페이스와 문화적 타자에 관한 관심 주제를 인종이란 관점에서 더 연구하여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혀 둡니다.

• ABSTRACT •

It is very important to overcome the dichotomy between virtual/online and real/offline living when we analyze interactions in cyber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ships. The fact that power relationships offline permeate other relationships online can be well understood by methodologically using the concept of race in cyberspace. The question of how the discourses of race based on Western-centered thoughts and values work in cyberspace helps us to understand how deeply many discriminations and oppressions of the cultural others are being strengthened. These cultural others can be empowered to be moral agents in their own contexts by naming social evils, based on the socio-historical concreteness and the notion of their new identities. To critically read distorted relationships in cyberspace could be led to open up a possibility for cultural others to overcome their uniformly defined identities and oppressed experiences and to paradoxically use them for their moral agency. The possibility is based on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of all human beings as active moral agents who continue to do moral reflections and practices and have the power to create and mediate new interactions in cyberspace. In addition, cyberspace could be claimed as a sacred place when it is used as a communal and responsible place for responding to God's call for love and justice.

Key Words : cyberspace, race, cultural others, relationship, empowerment

I. 들어가는 말

사이버스페이스를 연구한다는 것은 수많은 관계성들을 읽어나가려는 시도이며, 현재의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지배적 관계성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점검하려는 기독교 윤리학적 시도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그물망으로서의 창조세계를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왜곡된 관계성들에 대한 비판의 규범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적 점검을 위해서 사이버스페이스 내 인종적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를 위한 비판적 질문들을 세워보았다. 첫째,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자체로서 속성상 본래적으로 해방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본래적 속성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가? 오프라인의 권력구조로부터 온라인의 삶이 자유로운가? 아니면, 오프라인의 권력구조가 온라인에 더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의 삶 속에 담겨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이 경계가 모호함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셋째, 사이버스페이스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도덕적 주체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이루어갈 때, 신성한 공간으로 주장되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존재론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용되어질 때 책임의 영역에서 신성한 장소로 주장되어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 고민하려는 것이다. 보다 정의롭고, 인간다운 관계성, 서로를 살려내는 관계성을 지지해 내는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상호작용이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다양한 관계성¹⁾을 읽어내는 기독교윤

1)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이 자신들에게만 적합화 되어 공급되는 폐쇄적이면서 독점적인 정보에 관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개방성이란 개념보다 인터넷 사용

리학적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와 함께 인종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인종에 관한 이해, 인종이 어떻게 표현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와 관련한 문제와 이슈들이 무엇인지에 관심하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읽어나가면서 기존에 쉽게 간과되었던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성들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인종을 둘러싼 문제들에 관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민감하도록 도와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이 스며들어 있는 권력과 힘의 구조를 읽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종이란 개념은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우월주의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진 사회적 형성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인간다운, 서로의 생명을 살려내는 관계성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인종의 문제를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읽어나가려는 시도는 단지 전략적 접근을 넘어서, 현재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무엇이며 우리가 세계에 관해 알아가는 방법, 획득한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데도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인종차별주의 담론에서는 한 사람의 해방은 늘 또 다른 사람의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에²⁾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적 담론들과 행동들을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과정과 직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스페이스 내 인종에 관한 문제에 관심하게 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인위적인 이분

자에게 독점적 폐쇄성을 제공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사이버스페이스 내 다양한 관계성과 상호작용 중 최근의 특징적 한 변화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Erik Qualman, *Socialnomics*, inmD, 『소셜노믹스』(의왕: 에이콘, 2009), 288-292.

2) Lisa Nakamura, *Cybertypes: Race, Ethnicity, and Identity on the Interne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2), xv.

법적 사고가 왜 불가능하지에 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타자가 어떻게 읽혀지고, 획일적 차별의 문화를 넘어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도덕적 주체로 힘을 얻게 될지 고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윤리학적 의미에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차별과 편견을 읽어내는 작업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전략적 장소로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책임적 공간, 즉 부정의를 향한 공동의 저항적 참여의 신성한 장소로 전망하는 것과 연관시켜보고자 한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권력과 질서들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최근 경험하고 있다.³⁾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저항과 도전들이 사이버스페이스와 도덕적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것이지, 사이버스페이스의 본래적 속성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해방적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의 장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왜곡된 관계성의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나가는 작업은 필수적일 것이다.

3) 한국의 경우, 2002년 효순, 미선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2002년 대선 당시 인터넷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점, 2008년 미 쇠고기 수입관련 촉발된 촛불집회 및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새로운 토론문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시민들이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일과 일인 방송 시스템이 가능해진 점, 최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자기주장과 여론공유 등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실제적인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실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상업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통제, 악플 등과 같은 부정적 소통문화,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의 확대 재생산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사이버스페이스 내 상호작용들에 존재하고 있다.

II.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인종의 문제를 읽어가기: 현실과 가상현실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서

기술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관계성들을 우리의 경험과 이야기 구조 가운데서 읽어가는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발달한 기술문명이 제공하는 현실에 관한 낙관적 이해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의 장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인종의 문제를 읽어간다는 것은 사회의 실제적 불평등의 문제들을 추상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힘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신화를 적극적으로 해체시키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타라 맥퍼슨(Tara McPherson)은 “사이버스페이스란 가상현실은 종종 실제 세계와 이분법적으로 반대되어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이해되어져 왔지만, 그것이 권력과 정치, 구조적 관계들에 이르러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때,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자체로 실재이다”⁵⁾ 라고 말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권력과 힘의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이야기한다. 다니엘 펀데이(Daniel Punday)도 초창기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믿음은 인종, 성, 계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건들을 탈출하는데 사이버스페이스가 하나의 길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비판가들은 “온라인 담론이 전형적으로 문화적인 서술과 이야기들, 정확하게 동일한 사회적 조건들이 심겨져 있는 이야기들”⁶⁾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4) Aidan Davison, *Technology and the Contested Meaning of Sustainabilit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175.

5) Beth, E. Kolko, Lisa Nakamura, & Gilbert, B. Rodman, (eds.), *Race in Cyberspace* (New York: Routledge, 2000), 4.

6) Cited in Lisa Nakamura, *Cybertypes: Race, Ethnicity, and Identity on the Interne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2), xii.

사이버스페이스 내에 인종에 관한 편견과 차별의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읽을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 왜곡되어 ‘정형화’된(stereotyped) 인종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정형화의 문제는 단지 일반적으로 ‘잘못된 표현과 반영’(misrepresentation) 만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실재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현실이 실재가 되는 비현실적 실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인종에 관한 정형화의 과정은 강화되어져 왔다. 바이론 버크할터(Byron Burkhalter)는 오프라인에서 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정체성에 관한 정형화가 더 변경하기 어려우며, 인종이라는 오프라인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특징이 제거되기 보다는 오프라인 세계를 닮은 온라인상의 인종차별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호작용들은 오프라인에 비해 제한된 자료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았다.⁸⁾ 보다 제한된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는 온라인에서의 인종차별적 세계가 오프라인보다 허술하게 구성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보다 집중적으로 강화된 형태의 인종차별적 특징들⁹⁾이 드러남을 말한다. 우리가 사이버스페이스, 소위 인터넷에 접속할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건 지워진 우리의 삶의 정황과 지식을 가지고 그 공간에 들어가게

7) Rey Chow,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59.

8) Marc A. Smith & Peter Kellock, (eds.), *Communities in Cyberspace* (New York: Routledge, 1999), 63.

9) 인터넷 상에서 문화적 정체성에 집착한 신민족주의적 자국우월주의, 상대방 국가나 민족을 비하하는 ‘넷셔널리즘(net nationalism)’이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흐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매우 과거적 정체성에 근거한 집단 우월주의, 민족과 인종우월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강준만,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서울: 개마고원, 2009), 233-236.

된다.¹⁰⁾ 우리가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이리 저리 돌아다닐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위치 지워져 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우리의 '사회적 제조조건들로서의 위치'(social locations)는 결코 변화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기본적 사실들로부터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인종과 인종을 둘러싼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상에 드러나는 권력과 힘의 관계성들이 어떻게 문화적 타자로서의 유색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인종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인터넷과 같은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작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인종에 대한 표현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실제적 인종의 역사를 지워내면서 소위 보편적이면서 소비적인 속성을 가진 사이버 시민이라는 개념을 세워갔는가? 이러한 비판적 질문들의 관점은 사이버스페이스가 자연과 타자성에 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종이라는 신화는 거대한 사회적 형성물로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매우 교묘하게 숨겨진 채로 강화되어진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는 매우 심각한 인종과 관련된 실제 역사를 지워서 제거해 가면서, 표면적인 차원에서 각종 수사학적 기법으로 다양성을 지지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표피적 다양성을 “미용적 차원의 다문화주의”¹¹⁾(cosmetic multicultural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에 관심하는 것이 세계 자본의 흐름 과정 가운데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자본화된 도시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일 수 있음도 이와 맞닿는 부분이다. 표면적인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¹²⁾, 상대적인 가치

10) Kolko, Nakamura and Rodman, 5.

11) Nakamura, 21.

12) Neil, J. Smelser & Jeffrey, C. Alexander, *Diversity and Its Discontents: Cultural*

들만을 보편화 시키고 실제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자기비판성의 수용으로서의 다양성을 지지하지 않는다.¹³⁾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인종에 관한 이야기 구조를 읽어내기 위한 유용한 방법론적 개념을 리사 나카무라(Lisa Nakamura)는 “사이버타이프”(Cybertype)이라고 제안한다. 정형화에 관한 일반적 이해와 더불어서 그 이해가 어떻게 유통되고 강화되는지에 관심하는 것이다. 나카무리는 이러한 사이버타이프는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인종과 인종주의에 관한 이미지들이 주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상업화되어지는 독특한 방식들을 묘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사이버타이프는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들과 관계성, 사회경제적 작용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스스로를 표현해 내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드러내는 문화적인 다층성이 이데올로기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종과 같은 사회적 형성물들이 새로운 매체 안에서 표현되어질 때, 그 표현의 방법을 컴퓨터가 어떻게 규정하는지”¹⁴⁾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한다. 억압된 정체성들을 경험하였던 사회적 약자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새로운 정체성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해도, 그들은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진 육체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데올로기”¹⁵⁾를 단지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선택했든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정체성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가치절하된 삶을 반영하

Conflict and Common Ground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3-5.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도덕적 가치의 강조와 깊은 연관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공유되어진 사회적 가치가 숨겨진 억압적 가치와 은밀하게 연관되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적 담론과 더불어서 그 속의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적 구조물들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13) 박충구, 『21세기 문명과 기독교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42.

14) Nakamura, 3.

15) *Ibid.*, 4.

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무라는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사이버스페이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인지를 반문한다. 나카무라는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상호작용은 타자성을 제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노력은 비판적으로 점점 되어야한다.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타자성을 제거하는 움직임은 오히려 실제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서구 중심의 백인우월주의 주체들을 위한 획일적 문화를 더 강화시켜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여러 종류의 힘들을 불공평하게 상호교환하는 과정”¹⁶⁾ 속에서 일어나며, 서구인들이 타자들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서구 백인들에 의해 구별되는 소위 비서구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획일적 문화의 안정적 구조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이버타이프는 인종에 대한 이미지들이며, 그것들은 서구인들의 두려움, 염려, 욕망들이 문자와 그래픽 환경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다.”¹⁷⁾ 그러므로 이러한 서구 중심적 인종에 관한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탈식민지주의 연구와 맞닿게 된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가 서구 중심적 세계화 경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것과 서구 백인 우월주의적 주체 개념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지고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다.

서구 백인 중심의 획일적 문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타자성은 새롭게 정의되어지고 새롭게 진술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인터넷과 관련되었던 많은 TV 광고들¹⁸⁾은 인터넷을 하나의 상품

16)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13.

17) Nakamura, 6.

18) 리사 나카무라는 인터넷과 관련된 TV 광고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 숨겨진 수사학적 해석

으로 다루면서, 그와 동시에 인터넷을 사회문제들에 대한 통합적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의 이중적 메시지는 실상 근대성이 대표 하는 진보에 근거한 인간의 거대한 기술적 통제 능력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상품으로서의 인터넷이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수많은 광고들은 “사이버스페이스와 네트워킹 기술이 민족적, 인종적 차이를 실제로 없애버리지도 모른다는 서구인들의 불안과 두려움”¹⁹⁾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작된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광고 중,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초창기 자주 사용한 슬로건은 “당신은 어디로 떠나고 싶습니까?”(Where do you want to go?)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슬로건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급진적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이동의 자유는 그들이 방문하는 곳에서 늘 여행자로서 머무르는 자유이다. 방문한 곳에서 어떠한 실제적 관계성들을 갖지 않는 것, 방문한 곳의 사회적 상황과는 거리를 유지하는 자유를 말한다. 방문한 곳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들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자유이다. 인터넷에 의해서 제공된 인종적, 민족적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적 세계를 기뻐하고 있을 때, 실상 근대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다국적 세계 기업들은 타자성을 조

의 틀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MCI 회사의 ‘국가’(Anthem)라고 제목 붙여진 광고의 카피는 다음과 같다. “인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병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신만이 존재합니다. 유토피아냐구요? 아닙니다. 인터넷이죠”(There is no race. There is no gender. There is no age. There are no infirmities. There are only minds. Utopia? No, Internet); 1996년 올림픽을 맞아 AT&T의 광고는 “한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라”(Imagine a world without limits)였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카피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Where do you want to go?)였으며, IBM은 “작은 행성을 위한 해결책”(Solutions for a small planet)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광고들의 공통점은 이미 해결책이 주어진 듯한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실제의 사회문제들을 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타자성을 제거하는 구조와도 맞닿는다. 이러한 광고에서 말하는 세계는 과연 누구의, 누구를 위한 세계인가?

19) Kolko, Nakamura and Rodman, 15-6.

작되어진 ‘원시적 순수성’으로 고정시켜 놓는다. 왜냐하면, 타자성이 ‘원시적 순수성’으로 남아 있게 될 때, 서구 중심의 백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 안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다양성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서구중심적 상호작용은, 서구인들이 스스로 이 다양성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나카무라의 사이버타이프라는 이해는 이러한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 현실과의 차이를 읽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드러나는 표면적 상호작용이 갖는 다층적 관계성들의 의미작용과 그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겉으로 드러나는 인터넷 접근성이 실제로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인간다운 생명의 관계성들을 살려내는 삶의 기회보장과 직결되지 않음과 같은 이치이다.

사회변혁을 위한 사이버스페이스 자체의 잠재적 가능성과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이 도덕적 주체들을 통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인종적 문제를 매우 실감 있게 드러낸 ‘카즈모 닷 콧’(kozmo.com)과 관련된 법적 소송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익명적이며, 매우 유동적 정체성을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이버타이핑의 구조를 실제로 벗어나지 못함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2000년 3월 13일 인터넷 회사에 대한 첫 번째 시민 권리를 위한 집단 소송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일이 있었다.²⁰⁾ 사건을 요약하면, ‘카즈모 닷 콧’이란 인터넷에 기반한 회사는 인터넷 보급률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우편번호로 분류된)이라면 어디라도 간단한 생필품과 음식을 배달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런데, 회사는 막상 인터넷이 보급된 지역 분류와 더불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흑인 밀집지역으로

20) Nakamura, 10.

분류된 지역에 대해 배달을 거부했다. 이 일로 인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워싱턴 지역에 사는 제임스 워렌과 위노니아 레이크가 요청한 주문은 배달이 거부되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약속과는 달리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과 동등한 인터넷 보급률을 보인 중산층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거주지역에 관해 배달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일로 이 회사는 인터넷과 관련된 인종차별적 문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이 첫 소송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 의미는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인종적 문제에 관심하는 전략적 방법이 오프라인의 권력과 힘의 구조가 온라인 안에 스며들어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²¹⁾

III.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타자를 이해하기: 인종적, 민족적 이해와 표현이 드러나는 구조들

사이버스페이스가 윤리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장소일 수 있을까?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관계성을 입체적이며, 시각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으며, 한번 드러나기 시작한 비판의 지점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사이버스페이스와 그로 인한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이다. 이 비판과 저항의 상호작용을 읽어내는 한 지점이 인종적 차별과 편견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왜곡된 인종차별주의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읽어내고 비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타자들의 이미지들이 유로-아메리칸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실제로 타자들에 의해 어떻게 내면화되어

21) *Ibid.*, 149.

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답변해가는 과정에서, 레이 차우(Rey Chow)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책 제목을 풍자한 그녀의 저서,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인종적, 민족적 표현과 이해가 현대사회 가운데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한다.

레이 차우는 나카무라가 ‘사이버타이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매우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차우는 인종적, 민족적 표현과 이해의 작동기제를 전지구적 상품화의 과정에 본래적으로 내재된 정치로서의 인종주의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정치 상황에 저항하고, 이로부터 해방을 어떻게 얻을지에 관심이 있다.

무엇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은 다른 것, 이국적인 것으로서 주류 규범적 사회와 구별되는 소위 인종(또는 민족)주의이다. 이러한 인종주의는 단지 특정 인종들, 민족들의 현재의 모습에 의해서 차지된 정적인 공간을 단지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인종적’이라고 표식이 붙여지고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에 관해서 서구화되고 미국화된 관객들에 의해 일정하게 인정되어지는 문화정치학적인 관계성이다.(중략) 다시 말해서, 인종주의의 상품화는, 타자들의 문화가 살아 영향력이 있던 죽어서 영향력이 없던 간에, 타자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갇혀져 사로잡혀 있다는 확신과 그러한 사로잡혀 있음이 저항과 해방을 필요로 한다는 확신에 의해서, 그 의미가 유효해진다.²²⁾

차우는 인종적, 민족적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부정적 힘들을 저항의 힘으로 변

22) Rey Chow,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22-23.

형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차우가 말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첫째 중요한 지점은 ‘모방’(mimeticism)이다. 이 모방은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형성해 온 명령, 즉 백인 남성이 원형이며, 그 원형을 따라야 한다는 명령²³⁾이다. 이 단계에서는, 식민지인으로서 인종적 타자는 언제나 식민지배자로서의 원형에 의해서 판단받고 평가되어진다.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계층적으로 질서 지워진 하나의 거대한 체제 속에서 백인 남성만이 진짜라는 기준에 도달한다. 차우는 피식민지인으로서 인종적 타자들이 지배적인 서구적 가치들만을 오로지 따르도록 강요받는데, 비극적 현실은 인종적 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성공적으로 따른다 해도 그들은 결코 그들의 삶에서 소위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동양적인 것을 서구의 눈으로 신비하게 규정해 가는 과정과 일치되며, 동등한 관계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강요되어지는 단계를 지나면, 차우는 탈식민지적 주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모방의 단계가 더욱 복잡해져 감을 설명한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모방은 “백인이 되고 싶은 욕구,” 백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욕구는 “동시적으로 늘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열등한 위치에 대한 내면화된 수치심을 동반”²⁴⁾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명확히 나누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이러한 정체성들이 현재의 세계화된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서 서로 스며들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 사이의 관계성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고

23) *Ibid.*, 104.

24) *Ibid.*, 105.

고정된 듯 보이지만, 사실 움직이고 있으며 사실 흘러 스며들며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차우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모방적 시도의 미완성을 말한다. 미완성의 지점에서 “백인이 아닌 주체들을 흥미로운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²⁵⁾ 모방의 두 번째 단계가 발생한다.

셋째, 이 모방의 마지막 단계는 인종적 타자들이 그들에게 왜곡되어진 채 내면화된 기대에 따라서, 자신들이 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놓여진다. 이것은 바로 “인종적 타자들에게는 인종적 타자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특징을 갖는 것이 기대된다”²⁶⁾는 의미이며, 인종적 타자들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차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제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원형은 이제 더 이상 백인 남성이나 백인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종적 타자들의 이미지, 스테레오타입으로 정형화된 인종적 타자들에 대한 관점”²⁷⁾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인종적 타자들에 덧붙여져 온 선입견들을 받아들이고, 복제해 내는 과정, 자신들을 스스로 그 편견들에 의해 대상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들을 인종적 타자들과 인종해버리는 과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모방의 과정은 속성상 매우 강제적이지만, 서구 중심의 가치와 사상들이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때, 역설적으로 매우 순응적이기도 하다.

차우의 견해를 따라가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모방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모방의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인종적 타자들이 상품화되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비판적으로 점검되어지고, 소위 다양성의 이름으로 이러한 정형화되고, 왜곡된 모방의 과정이 어떻게

25) *Ibid.*, 106.

26) *Ibid.*, 107.

27) *Ibid.*, 107.

입체적으로 폭로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차우는 어떻게 이러한 모방과 정형화의 과정이 어떻게 실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지에 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모방,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어떻게 복제되고, 또 모방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방과 연관된 권리침해와 위해성, 폭력, 공격적 침략들의 속성들, 이 속성들을 지탱해 주는 논리들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이러한 차우의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사이버스페이스가 인종 차별주의와 인종과 민족에 대한 표현과 이해가 매우 상호 교차적으로 억눌려지고, 정형화되어지고, 반복적으로 다시금 재현되어지는 과정이 매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임을 알게 해 준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이러한 전파를 통해서 서구 중심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불평등한 상호교환의 관계가 유지되고 다양성의 이름으로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피식민지배자로서 또한 문화적 타자로서의 유색인, 유럽인도 미국인도 아닌 존재로서의 타자는 역설적으로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 사이의 경계, 중심부의 사람과 주변부의 사람 사이의 경계에 놓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처럼 놓이게 된 경계는 늘 불분명하며 모호하다. 신학적으로 의인이면서 죄인인 인간의 이해와 더불어, 인간이 자기초월적이며 자기비판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언제나 자기중심적 이기적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과도 같은 역설적 정체성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설적인 이중적 속성의 관계성을 제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긴장 관계성을 창조적인 비판의 힘으로 조정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차우의 경우, 정형화

28) *Ibid.*, 54.

된 모방의 과정을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의 역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형화된 이미지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속성들과 가정들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곡된 관계성들과 불평등한 교환관계들을 변혁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역설적 관계성을 어떻게 뿌리 뽑을까에 있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역설적 관계를 의식적인 자기비판으로 알아채면서 자기 자신을 전략적으로 이 역설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전략적인 위치형성이란 과제는 문화적 타자들이 새로운 관계성을 꿈꾸고 형성해 가는 도덕적 창조력이다.²⁹⁾ 이는 왜곡되어진 관계성, 불균형적 교환 관계의 실제적 경험들과 이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도덕적 성찰과 실천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설적이면서 이중적 관계성들, 겹쳐지면서 서로 스며들어 간섭하고 있는 관계성들을 비판적으로 읽어가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탈식민시대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하고자 한다.

IV.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벌어지는 대상화: 탈식민지적 정체성과 상황을 판매하기?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벌어지는 탈식민시대적 상호작용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이면서도 함축적 답변은 탈식민시대의 정체성과 상황을 “판매”(marketing)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략한 답변에 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의 탈식민지시대의 콘텍스트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탈식민지주의 연구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29) Larry, L. Rasmussen, “A Different Discipline”,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53(3-4), (1999), 48, .

탈식민지주의가 결코 식민주의 상황이 현재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것과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와 왜곡된 관계성들이 결코 자동적으로 극복되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식민지시대와 탈식민지시대가 단절되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현재 세계적 후기 자본주의시대 속에서 “제국의 생태정치학적 힘”³⁰⁾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생물학적 힘의 속성을 가진 패러다임의 형태”³¹⁾로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그래햄 후간 (Graham Huggan)은 탈식민지주의의 연구³²⁾ 그 자체가 종종 문화적 상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탈식민지주의의 연구가 지역적인 대립적 담론들과 후기 자본주의의 시스템 사이에 얽힌 관계성의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고찰하면서, 이러한 얽혀진 관계성 속에서 탈식민지주의의 담론들이 유통되어지고 표현된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작용을 대표하는 한 표현으로, 탈식민지주의가 “주변의 소외된 자들과 주변부들을 판매”³³⁾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서, 탈식민지주의의 연구가 단지 “저항을 위해 광범위하게 지역화된 대항주체”³⁴⁾일 뿐만 아니라, 서구의 허위 보편적 인본주의가 관심하는 소외된 문화적 타자들을 상품화하는 도구적 제도로 작동하기도 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품화 과정에서는, 소외된 문화적 타자들은 이중으로 억압의 구조를 경험한다. 서구중심의 인본주의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문화

30) Michael Hardt &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402.

31) *Ibid.*, xv.

32) 아이러니컬하게도 탈식민지주의의 연구는 최근 십여 년 동안 매우 왕성하게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라크 전쟁이나 테러와의 전쟁이란 제국주의적 수사학의 콘텍스트 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연구가 실제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3) Graham Huggan, *The Postcolonial Exotic: Marketing the Margins* (New York: Routledge, 2001), vii.

34) *Ibid.*, ix.

적 타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획일적 브랜드 이미지로서 여겨지고 또 재생산되는 것이다.

후간은 이러한 탈식민지주의 상황의 이중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이국적인 것”(the exotic)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국적 정서는 문화적 타자들이 번역되어지고, 유사한 것과 연관 지어지는 미학적 과정으로서 통상 이해되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탈식민지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이국적 정서는 문화적 타자성에 대한 세계 중심부의 기대를 어지럽히고 또한 권력의 차등적 관계성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다시금 정치화되고, 재배치되어 사용된다.³⁵⁾

후간은 ‘이국적인 것’이란 서구의 문화적 타자들을 규정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적 개념이 서구중심성에 대한 저항의 정치학에 중심에 놓일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평가한다.

후간의 이러한 이중적 의미로서의 이국적인 것에 관한 이해는, 문화적, 인종적 타자들이 서구 중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굴종적 태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와 동시에, 탈식민지시대의 이국적인 것에 관한 이해가 서구 중심적 권력관계에 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저항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지주의 연구가 제도화되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문화적, 인종적 타자들을 판매하고 있을 수 있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탈식민지주의가 의심하며 비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왜곡되고 규정된 타자성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³⁶⁾이 존재하게 된다.

35) *Ibid.*, ix-x.

36) *Ibid.*, xv.

그렇다면, 문화적 타자에 관한 이러한 획일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작용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인종적 혹은 민족적 차이들을 지워나가는 것, 또는 이러한 차이들의 부재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개방적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나카무라는 탈식민주주의 정체성을 표현해 내는 역설적 구조를 말하는데, “인종적, 민족적 차이가 지워지고 사라지는 것은 단지 그것의 현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³⁷⁾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서, 인종적 혹은 민족적 차이들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자유롭게 아무제한 없이 어느 때나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동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은 식민주의에 깊게 뿌리박힌 여행자의 관점을 대변한다. 여행자 관점이란 “유색인들을 이국적인 존재로서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타자로서 팔호 안에 묶어 한계 지움”³⁸⁾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 사용자로서 서구적 주체들은 “타자들을 드러내주는 안정적 기표”³⁹⁾를 찾아서 가상적으로는 어디로든 떠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분명히 존재해 주어야 하는 타자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행이 된다. 반면에, 타자들은 어디로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으며, 그들이 있어야만 하는 그 곳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받는다. 혹, 이동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서 상품들로서 이동할 뿐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기반을 둔 여행자적 관점과 타자를 이국적이고 원시적 존재라고 바라보는 식민주의의 강한 결합은, 이제 세계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하나의 매력적인 사용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37) Lisa Nakamura, “‘What Do You Want to Go Today?’: Cybernetic Tourism, the Internet, and Transnationality”, In *Race in Cyberspace*, (eds.), Beth, E. Kolko, Lisa Nakamura, & Gilbert B. Rodman (New York: Routledge, 2000), 16.

38) *Ibid.*,

39) *Ibid.*, 17.

이러한 여행자적 시각은 사이버스페이스 사용자들로 하여금 부정의한 일에 대한 실제적인 저항과 분투에 몸으로 직접 참여하는 일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이트에서 또 다른 사이트로 재빠르게 이동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존재들을 발견하여 관찰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끝없는 이동을 감행한다. 이러한 여행자로서의 끝없는 움직임이 실제적 콘텍스트에 뿌리내려져 있지 않은 이동과 관찰이기 때문에, 여행자 당사자들로 하여금 인종적 차별과 불평등한 관계성을 다루어 나가는 도덕적 성찰과 실천을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끝없는 여행자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의 이동이 고통의 현장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보도록 허용하지만, 불평등한 상황과 차별적 관계성들은 빠르게 코드화된 데이터로 전환된 정보는 상품화되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상품화는 세계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그물망, 식민지적 상황으로서의 그물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내에 수많은 이용자들은 정체성을 찾아 이동하는 여행자들이며, 자신들이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떠난 여행을 통해서 사실은 정해진 역할, 기대되어진 역할을 그저 감당하는 대상이 되고 만다. 고도로 상업화된 공간 중 하나인 놀이공원에서 주체가 대상화되어지는 구조는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모든 존재들이 대상화되어지고, 규정되어지고, 상품들로 환원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구조와 일맥상통한다.⁴⁰⁾ 사이버스

40) 예를 들면,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대개 매일 저녁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이러한 퍼레이드에는 디즈니 캐릭터 인형들과 수많은 퍼레이드 행사 진행원들이 참여한다. 그 속에서 퍼레이드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디즈니랜드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퍼레이드에서 특권을 누리는 몇 몇 안 되는 소수의 관광객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퍼레이드를 소비하는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퍼레이드 속의 소비의 대상이 되어있는 모습이다. 하나의 아이러니는 그러한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디즈니 리조트에 투숙하는 자들, 퍼레이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더욱 더 소비할수록, 우리는 놀이공원의 메카니즘 속에서는 더욱 더 상품화 되어질 뿐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Michael

페이스 내에서, 모든 존재들은 암호화된 데이터로 바뀌어질 수 있고, 웹을 통해서 언제라도 사용가능한 상품으로서 전환되어질 수 있다.

V. 기독교윤리학적 과제 읽기: 도덕적 주체인 문화적 타자에게 힘을 부여하기

기독교윤리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문화적 타자로 규정되어왔던 인종적 약자들은 그들 모두가 스스로의 삶의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위치지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주체들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왜곡된 관계성들의 모습들을 스스로 읽어 나갈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도덕적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도덕적 성찰과 실천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도덕적 관계성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능력이며,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⁴¹⁾ 뿐만 아니라, 이는 문화적 타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자기비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인간이해에도 불구하고, 누가 역사 가운데서 문화적 타자들로 여겨져 왔는가? 문화적 타자들은 서구 중심의 주체성, 허위 보편주의에 의해 규정되어진 이들이었으며, 또한 서구인들이 원주민들의 문화, 즉 식민지에서 식민지의 문화적 진본(authenticity)을 찾으려는 시도에 의해서

J. Ostwald, "Identity Tourism, Virtuality and the Theme Park," In *Virtual Globalization: Virtual Spaces/Tourist Spaces*, (ed.), David Holm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1).

41) Beverly, W. Harrison, *Making the Connections: Essays in Feminist Social Ethics*, ed. Carol Robb, (Boston: Beacon Press, 1985), 10.

억눌려왔던 자들이다. 데이비드 치테스터(David Chidester)는 서구인들과 구별되는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인 진짜 차이들을 확증하려는 그릇된 시도들에 의해서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억압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한다.⁴²⁾ 식민지 지배자들의 추상적 이해들과 피식민지 사람들의 실제적 삶 사이의 차이들이 무시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고착된 문화적 차이들을 규정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의 왜곡이 계속되어져 왔다.

문화적 타자들의 삶을 본질이란 말로 규정하거나, 존재론적으로 이미 질서 지어져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은 무서운 폭력의 구조를 가져왔으며, 실상 소위 주류 서구인들과 문화적 타자들의 정체성들이 현재의 세계화된 탈식민지주의 시대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경계의 모호함을 이해하는 것은, 피지배자로서의 문화적 타자들만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자들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 규정되어져 왔던 부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상호간에 상호 겹쳐지고 스며들어있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없이는, 서구 중심적 가치와 사고가 문화적 타자들 안에 내면화된 구조를 분석하고 바라볼 자기 비판적 힘을 가질 수 없다.

겹쳐있고 스며들어있는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구체성에 관한 질문이 분명해야 한다. 흑인여성신학자 마르시아 리지스(Marcia Riggs)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들 내부 사이에서 상호간 사회적인 책임을 형성하는 일에 관심하면서, 더욱 더 삶의 구체성에 관해 질문하고, 우리를 둘러싼 신화들을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리지스는 흑인 공동체들 내부에 퍼져 있는 사회적 신화들을 세 가지로 대별해 지적하는데, 그것

42) David Chidester, *Savage Systems: Colonialism and Comparative Religion in Southern Africa* (Cha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6), xiii.

은 보편적 평등에 관한 신화, 개인적 예외주의의 신화, 추상적 정의에 관한 신화이다.⁴³⁾ 리지스가 그녀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신화들을 삶의 구체성으로부터 비판적으로 읽어내려는 노력은,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확일적으로 이해되어져 온 문화적 타자들이 규정받고 억압된 정체성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기독교윤리학적 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리지스에 따르면, 첫째, 보편적 평등의 신화는 거대한 규모의 불평등한 관계성들을 효과적으로 잘 읽어내지만, 그 거대한 불평등의 거대함만을 보면서 실제적 불평등의 구체적 현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불평등의 구조를 읽어낼 표면적 언어만을 제공한다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표면적 언어는 거대한 불평등의 구체성을 가림으로써 문제를 희석시켜나간다. 예를 들면, 흑인해방의 과제 속에 살펴보는 인종차별의 문제 구조 속에서, 흑인 공동체 내의 여성차별의 구체적 현실은 가려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둘째, 개인적 예외주의의 신화는 주류사회에 편입하기를 원하는 개인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우수한 흑인이 주류사회에 편입되어야만, 바로 그 예외적인 개인이 흑인사회를 위해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사회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작업 없이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간과한 신화이다. 셋째, 추상적 정의에 관한 신화는 부정의에 관한 흑인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켜버리고, 흑인들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참여의 구조, 구체적 실천의 방법이 불분명한 정의에 관한 논의들이 도덕적 성찰과 실천에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화들에 관한 비판적 이해는, 삶의 구체성을 상실한 도덕적 성찰과 실천이 얼마

43) Marcia, Y. Riggs, *Awake, Arise, & Act: A Womanist Call for Black Liberation*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1994), x-xi.

나 추상적일 수 있는지 지적한다. 실제로는 문화적 타자들이 서구중심적 사고와 가치들을 내면화해 가면서 그것에 관해서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주는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인종, 성, 계급, 국적의 차이 없이 보편화된 인간, 가상적으로 보편화된 시공간 속에 위치 지어진 인류, 다시 말해서, 삶의 구체성과 단절된 소위 보편적 인간은 탈식민지 상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보편적 인본주의’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이 일을 이루어 내고 있다.

서구중심적 백인우월주의는 수많은 경우 보편적 인본주의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실제적 부정의의 현실을 추상적 부정의의 현실로 전환시켜 버린다. 리지스는 백인우월주의로부터 기인한 실제적 인종차별적 문제들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일반화시켜버리는 수사학적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주의의 문제를 모든 인종은 동일하게 분쟁이나 문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일반적 구조로 전환시켜, 백인우월주의적 서구적 사고와 행태를 감추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문화적 타자들은 삶의 구체성으로부터 서구중심적 차별의 논리에 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서구중심적 지배들에 대해 구체적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 에밀리 타운즈 (Emilie M. Townes)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악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붙여주는 작업은 사회적 악이 ‘문화적 생산구조를 통해 형성’(cultural production of social evil) 되었음을 이해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인 사회적 악의 구조를 명명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문화적 타자가 규정된 삶에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야기해 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⁴⁴⁾ 그리고, 사회적 악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름 짓는 일에 있어서,

44) Jeremy, W. Crampton, *The Political Mapping of Cyberspa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95. 자신이 경험한 사회적 악의 현실을 스스로 이해하여 풀어내는 힘은 자신의 경험을 참고하여 글을 쓴다는 의미인 ‘자기 참고적 글쓰기

문화적 타자들이 주변부에서 경험한 것들, 피식민지배자로서의 구체적 억압의 경험들, 그리고 더 나아가 겹쳐지고 스며들어있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 안에 내면화된 서구 중심적 사고와 가치들이 작용하는 부분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 매우 귀중한 실천의 안내자이자 규범적 척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가 문화적 타자들에게 사회적 악을 명명할 수 있는 실험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본래적 속성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문화적 타자들이 사이버스페이스와 더불어 만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접촉과 관계의 지점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수많은 정보와 서로 다른 가치와 사상들을 매우 다양하지만 창조적으로 교환해 갈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 그 자체에 관한 질문이기보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문화적 타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인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는 서구중심적으로 보편적 관계성의 확대, 평등한 관계성의 확립 등을 표면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문화적 타자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경험하는 관계성들은 이러한 측면들만이 아님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적 타자들은 표면적 의미의 보편적, 평등적 관계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조정될 수 있을지를 도덕적 주체로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며,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생명의 그물망으로서의 관계성, 즉 서로의 생명을 지지해 주는 관계성에 의해서 다양하게 점검되어야 할 과제를 갖는다.

(self-referential writing)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문화적 타자들은 누군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VI. 나오는 말: 획일적 차별의 문화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성으로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도덕적 성찰과 실천의 힘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문화적 타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부여된 도덕적 힘을 실천해 나가는 문화적 타자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서로 만나서 연대할 수 있을까? 문화적 타자가 획일적 의미의 규정된 문화적 타자들이 아니라면, 서구 중심적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 타자들이 어떻게 연대성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기독교윤리학적 근거는 무엇일 수 있을까?

기독교윤리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즉 전적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실천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늘 탐구하는 학문이요 실천이다. 하나의 규정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하나의 타협적 해결책을 쉽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성들을 책임적으로 읽어나가는 시도를 바탕으로, 보다 정의롭고 인간다운 관계성을 형성하고 재조정해가는 작업인 것이다.

새로운 관계성들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리지스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인종과 성, 그리고 계급의 실제적 차이들을 단순히 초월함으로써 제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차이로부터 누려왔던 특권을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차이를 인정하게 된다.⁴⁵⁾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는 특권의 포기라는 차원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위한 삶으로 부름 받은 공동체의 역사임에 틀림없다.

45) Riggs, 93-4.

타자를 위한 삶의 실천이 규정화된 도덕적 규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성의 창조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성찰과 실천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독교윤리학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 존재를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며, 이들이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의 공간이 아닌 책임적 응답의 공간에 자리잡고 있음을 지지한다. 이와 연관하여, 리지스는 수많은 차이와 다양성들 가운데서 결국 통합, 타협, 화해를 손쉽게 이루어내려기 보다 오히려 그것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한다. 그러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녀는 “조정 윤리”(mediating ethics) 라고 설명한다. 조정의 윤리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윤리적 응답의 공간을 창조해 가는 것이다. 가능한 응답들은 언제나 개방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삶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윤리는 단순한 타협으로서의 응답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⁴⁶⁾

리지스는 조정의 윤리의 핵심은 “사회역사적 관계성”이고,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⁴⁷⁾인 우리 모두는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들에 위치 지워져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 관계들 속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려는 사회역사적 실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가려는 건강한 윤리적 선택들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의 실제적 토대가 타자로서의 경험과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악에 관한 이해로부터 나와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양성과 차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불평등의 구조와 관계성을 고착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사회역사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것, 즉 구체적

46) *Ibid.*, 96.

47) *Ibid.*, 83.

삶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읽어 나가는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인종적, 민족적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적인 인종적 차별과 편견의 구조가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강화되고 있는지에 관심하는 것이다. 소위 단일 민족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인종적 차별과 편견의 구조로 읽어본다고 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는지 모르나, 우선 단일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허구적이며, 세계화 경제시대의 관계성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서구 중심적 사고와 가치의 작용과 얽혀져 있는 삶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인종적 표현과 이해가 지워져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현실이 보다 심각하고 교묘하게 가리어진 획일적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건강한 비판적 의식⁴⁸⁾을 가지고 늘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도덕적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이버스페이스 상에도 스며들어 작용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읽어냄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가는 전략적 장소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과 편견의 확립을 통해서 행사해 온 특권을 포기하는 일, 규정된 정체성, 허위 보편주의와 허위 인본주의의 사회적 구조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성을 꿈꾸는 일은 생명의 그물망으로서의 보다 정의롭고 인간적인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실천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문화적 타자들이 사이버

48) 박우진, 「보지 않기 위해 보기, 몽상 혹은 쓰나미로서의 새로운 영화: 한국의 미디어 지형 속에서 <아바타> 찾아가기」, 최정우 외, 『아바타 인문학』 (서울: 자음과 모음, 2010), 46.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서, 기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일차적 문제보다 그 기술이 어떤 의도로 쓰여지고, 확장되고 있는지 먼저 비판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스페이스 내에서 도덕적 주체들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고,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부정의에 저항하는 공동의 참여의 장으로 사이버스페이스가 사용되어질 때, 사이버스페이스는 도덕적 주체들의 책임적 실천의 장이란 의미에서 신성한 공간⁴⁹⁾으로 이해되어질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49) 문화적 타자들이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와 도덕적 능력을 긍정하고,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략적 공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사이버스페이스를 바라보는 시도이다. 전적으로 주어지는 의미의 신성함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고 응답하는 연대적 실천의 장으로서의 신성함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서울: 개마고원, 2009.
- 박충구. 『21세기 문명과 기독교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최정우 외. 『아바타 인문학』 서울: 지음과 모음, 2010.
- Qualman, Erik, inmD 역. 『소셜노믹스』. 의왕: 에이콘, 2009.
- Chidester, David. *Savage Systems: Colonialism and Comparative Religion in Southern Africa*.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 Chow, Rey.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 Crampton, Jeremy W. *The Political Mapping of Cyberspa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 Davison, Aidan. *Technology and the Contested Meaning of Sustainabilit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175.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Harrison, Beverly W. *Making the Connections: Essays in Feminist Social Ethics*, (ed.), Carol Robb, Boston: Beacon Press, 1985.
- Huggan, Graham. *The Postcolonial Exotic: Marketing the Margins*. New York: Routledge, 2001.
- Kolko, Beth, E., Lisa Nakamura, & Gilbert, B. Rodman, (eds.), *Race in Cyberspace*. New York: Routledge, 2000.
- Nakamura, Lisa. *Cybertypes: Race, Ethnicity, and Identity on the Interne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2.
- Rasmussen, Larry, L. "A Different Discipline",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53, 3-4. 1999.
- Riggs, Marcia, Y. *Awake, Arise, & Act: A Womanist Call for Black Liberation*.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1994.
- Said, Edward, W.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 Smith, Marc, A. & Peter Kellock, (eds.), *Communities in Cyberspace*. New York:

Routledge, 1999.

Holmes, David, (ed.). *Virtual Globalization: Virtual Spaces/Tourist Spac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1.

Smelser Neil, J. & Jeffrey, C. Alexander, (eds.). *Diversity and Its Discontents: Cultural Conflict and Common Ground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Townes, Emilie, M., (ed.). *A Troubling in My Soul: Womanist Perspectives on Evil and Suffering*. Maryknoll, New York: Obris Book, 1997.

Bad Subjects Production Team. "Manifesto for Bad Subjects in Cyberspace."

Bad Subjects, 18. (January 1995): <http://eserver.org/bs/18/Manifesto.html>

논문투고일 : 2011. 04. 30

심사개시일 : 2011. 05. 18

게재확정일 : 2011. 06. 09

• 국 문 초 록 •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관계성의 차원으로 읽어 나갈 때, 현실과 가상현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의 생활이란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오프라인 상의 힘과 권력의 관계성들이 온라인 상에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인종에 관한 문제들에 관심하여 사이버스페이스를 읽을 때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서구중심적 관계성들이 지배하는 인종에 대한 담론들이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또한 강화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화적 타자들에게 도덕적 주체로서의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회역사적 구체적 현실성에 근거한 정체성의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악을 스스로 명명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관계성들을 면밀히 읽어내감으로써, 획일적 이미지로서의 인종, 문화적 타자의 삶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든 인간이 도덕적 성찰과 실천의 주체라는 기독교윤리학적 인간이해에 근거하며,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창조하고 조정해나갈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책임적 공동의 장소로 이해되어질 때, 차별과 편견을 읽어내고 새로운 관계성을 지향하는 신성한 장소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이버스페이스, 인종, 문화적 타자, 관계성, 힘의 부여
